

6 인터뷰-차예은(태권도학 2020)



차 선수는 부상으로 인한 종목 변경, 아시안게임 1차 선발 탈락 등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'차미네이터'다.

(사진=노윤지 기자)

금빛 발차기로 아시아를 정복하다 “이제는 세계선수권 대표가 목표”

노윤지 기자 yoonji2022@khu.ac.kr
최예령 기자 herry2020@khu.ac.kr

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학교 차예은 선수(태권도학 2020)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. 차 선수는 부상으로 인한 종목 변경,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탈락 등 여러 고난에도 당당히 아시아의 정상을 차지했다. 우리신문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며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지켜낸 차예은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.

자유품새와 공인품새 올라운더(All-rounder)의 금빛 활약

“품새는 옐로카드, 레드카드와 같은 경고 없이 한 번 실수하면 경기가 끝이 난다는 점에서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예요.” 이러한 매력에 시작한 품새였지만 우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하는 차 선수를 못 볼뻔했다. 지난 2021년 4월에 개최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차 선수는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우연인지 운명인지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. 코로나19로 인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됨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치르기로 한 것이다.

품새 종목은 자유 품새와 공인 품새로 나뉜다. 아시안게임 품새 종목은 8강까지 공인 품새, 준결승전부

터는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 영역을 종합해서 평가한 뒤 순위를 매긴다. 주 종목이 자유 품새였던 차 선수는 아시안게임 연기로 생긴 시간 동안 공인 품새에 도전했다. “처음에는 동료와의 추억을 쌓아보려고 공인 품새에 도전해봤다”며 웃었다.

시작의 계기는 가벼웠지만 새롭게 시도해 본 공인 품새 훈련은 기량 향상의 발판이 됐다. 물론 주 종목이 아니었던 만큼 공인 품새의 벽은 높았다.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. 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 1위에 올랐고 태극마크를 달았다. “1등을 꼭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1등을 할 수 있었다”며 “큰 기대 없이 된 거라 오히려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”고 당시를 회상했다.

그렇게 참가하게 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대진부터 순탄치 않았다. 차 선수의 첫 대결 상대는 공인 품새 세계랭킹 2위였던 필리핀의 조셀 린 니노블라 선수였다. 자유 품새 랭킹만 보유하고 있는 차 선수에게 첫 대진에 상위권 공인 품새 선수와의 만남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.

상위권 선수와의 경기였기에 시작 전부터 차 선수의 탈락은 예정된 분위기였다. 경기 시작 전, 다른 국가 코치들은 “예은아 수고했다, 파이팅해”라며 비아냥거렸다. 하지만 차 선수는 좌절하지 않았고 “저 팀

들은 꼭 이겨야겠다”며 속으로 다짐했다.

차 선수의 기세는 대단했다. 준결승전부터는 자유 품새가 가능했기에 더욱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했다. 특히 준결승전 경기에서는 격과 선수 시절 고공 기술에 강점이 있는 차 선수의 자신감이 잘 드러났다. 한국적인 음악에 맞춰 고난도 아크로바틱 기술과 힘 있는 동작을 선보인 차 선수는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다.

차 선수는 꽤 담담하게 수상 당시 느낌을 전했다. “사실 금메달 딴 게 실감 난 건 한국에 돌아왔을 때였다”며 “공항에 기자도 있고 뉴스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신기했다”고 말했다. 더불어 “결승전 경기는 후회 없던 경기였기 때문에 매우 행복다”며 웃음을 지었다.

‘품새’ 종목 입상실적 좋지만 지원 미비해

하지만 금메달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. 차 선수는 이번 대회로 품새를 향한 낮은 관심을 확인하며 아쉬움도 느꼈다. “솔직히 대회 끝날 때까지도 아시안게임이 얼마나 큰 대회인지 실감하지 못했다”며 “관중도 별로 없었고 중계도 없어서 제 경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품새를 향한 낮은 관심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. “학교에 품새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”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. 품새부가 입상실적이 좋은 편이지만 타 종목에 비해 지원이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. “선승관이 아닌 지하 1층에 있는 도장을 쓰기 때문에 운동 환경이 좋지 않다”며 “바로 위층이 웨이트장이라 소리가 계속 쿵쿵 울리는 문제도 있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품새부는 타 종목과 달리 체육부 기숙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물품 지원도 없다”며 어려움을 호소했다.

현재의 열악한 환경이 본인의 금메달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차 선수는 말했다. “아직은 체육부보다 동아리 느낌이 강한 것 같고 품새부의 이동 수단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 학교 이름이 새겨져 있는 버스로 대회에 참가하는 타 대학 선수를 부러워했던 지난 날의 속상한 기억을 떠올리며 하루빨리 품새부의 환경이 개선되길 바랐다.

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거머쥔 차 선수지만 안주는 없다. 이젠 아시아를 넘어 세계선수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. 그리고 “은퇴 후 교수나 지도자가 되고 싶다”고 말했다. “교수가 된다면 우리학교 임신자(태권도학) 학과장님 같은 교수님이 되고 싶다”며 “태권도 겨루기 레전드셨던 임 교수님도

선수 생활을 경험했으셔서 저희 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과 배려를 받았다”고 설명했다.

또한 지도자가 돼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로 본인보다 더 훌륭한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도 꿈꾼다. “저는 후배들이 더 많은 것을 누렸으면 하고 제가 그 길을 넓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” 차 선수는 후배 태권도인들을 위한 생각도 빼놓지 않는 사람이었다.

아시아를 넘어 세계선수권 국가대표로 도약할 것

차 선수의 후배 사랑은 지금껏 받은 도움과 사랑의 대물림이다. 차 선수는 앞으로의 목표를 말하며 그동안 힘이 되어준 사람들을 떠올렸다. “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나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”며 “정신적인 면에서는 엄마에게,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재준 사범님께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았다.”고 말했다. 이어 우리학교 품새부 전민우 감독, 아시안게임 최연소 여성 지도자인 이재희 코치에게 감사의 인사도 덧붙였다.

격과에서 품새로 종목을 전향할 때도, 품새 선수로 활동할 때도 차 선수는 매 순간 “안되면 다시 하면 되지”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. 강인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품새에 대한 차 선수의 애정은 앞으로 어떤 선수, 어떤 지도자로 성장할지 기대하게 만든다. 아시아 최정상에 올라 우리학교를 빛낸 차 선수가 전 세계 정상까지 오르길 바라며 그녀의 쾌속 질주를 응원한다.